

결국, **지각**이 제일 큰 문제

누군지 알수는 없지만...

비행기 날리기 직전에 수업에 들어온 지각생들

- 오후에 진행된 수업이었건만...
- 배제하지 않고, 처음부터 참석중이던 학생들의 문제를 나눠 받음

‘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지각은 진짜 치명적’

- 상습 지각범들 다수 존재
- 이놈들(?)은, 특히 오후에 오는 대부분의 ‘녀석’들은 ‘전공과 출신’

지각 없애기

전공 학생의 수업 관심도를 높여보아요

- needs 파악 & 대응 필요

트랙1은 줄이고, 트랙2를 늘리고, 프로젝트별 기술 검토 시간을

더 늘렸다면 어땠을까

-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
- 서버도 ‘가볍게’ 다루기..?!

강사들에게 주어진 시간 배분도 조금 아쉬움

- track2 에서는 가급적 오전/오후로 강사를 나누는건 **지양**해야 하지 않을까